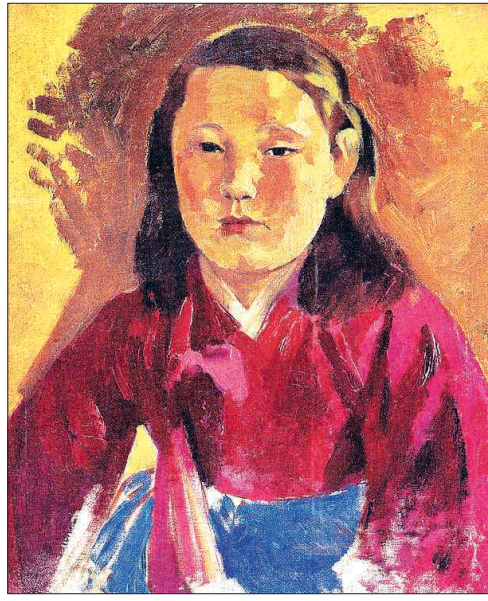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순회전

7월17일까지 시립미술관



강연균 작 '전라도 땅'(1990년)



이래재 작 '붉은 저고리의 소녀'(1940년)

거장들의 예술혼 한눈에

한국 미술사에 자취를 남긴 대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최근 미술품 경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환기 선생의 작품을 비롯 소정 변관식, 이인성 화백 등 국내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광주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다음달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1, 2 전시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2006 신소장 작품 지방순회'전을 개최한다. 전시작은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45억원을 들여 수집한 318점 가운데 광주시립미술관이 엄선한 38점이다. 변관식 선생의 '외금강 삼선암 추석'(1966)은 전통 산수의 세계를 근대 실경으로 끌어올린 소정의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여인상'(1954)은 김환기 선생이 홍익대 교수시절 학습지도용으로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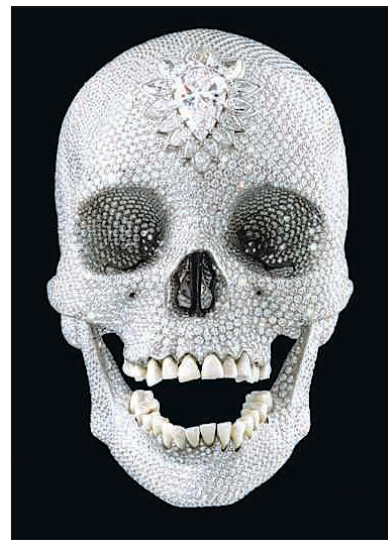
2006년 신소장품 38점 엄선 김환기·변관식씨등 작품 전시 추상적 조형안으로 한국적 정서를 담은 그의 작품 가운데 드문 인물화다. 사진 작가 정범태씨의 '결정적 순간'(1961)은 '서울 이미지 시리즈 15점' 가운데 하나. 5·16 쿠데타 이후 군사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과 아이를 표현한 이 작품은 지난 1961년 일본 아사히 신문 주최 국제 사진전에서 10대 결작으로 뽑힌 수작이다. '붉은 저고리의 소녀'(1940)는 월북 작가 이래재씨의 대표작이다. 사실주의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지난 88년 해금조치 이후 한국 화단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조병받았다.

이인성 화백은 '화단의 귀재', '천재화가'로 불렸던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화가. 이번에 출품된 '정물'은 지난 1929년 조선 미술전람회에서 17세의 나이로 입선한 뒤 일본 수채화전 최고상 등을 수상했던 작가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수작이다. 강연균의 '전라도 땅'(1990)은 한국 근대 화 시기에 박해받는 전라도를 표현한 작품이며, 김수자의 '05일가-부재'는 실(絲)로 이뻐 이유대, 오용길, 곽석순, 박중화, 안성금, 이철주, 강행원(이상 한국화), 김두환, 오병우, 하인두, 홍형경, 안창홍, 윤병로(이상 서양화), 김주호, 배형경, 아르망, 윤석원, 최일(이상 조각), 박영숙, 김기찬, 김영수(이상 사진), 정기호(서예)씨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것이 세계 최고가 현대 미술품

런던 화이트 큐브 미술관, 허스트 작 918억원 '신의 사랑을' 공개

'현대미술의 거장' 영국의 데미언 허스트(41)가 만든 5천만파운드(약 918억5천600만원)짜리 '최고가 현대미술 작품'이 마침내 공개됐다. 3일부터 런던 화이트 큐브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이 작품의 제목은 '신의 사랑을 위해'(For the Love of God·사건). 백금으로 주형을 뜬 실물 크기 인간 두개골에 52.5캐럿짜리 굵은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다이아몬드 8천601개를 촘촘하게 박아 만든 작품으로, 이 작품에 사용된 다이아몬드를 전부 합치면 자그마치 1천106.18캐럿에 달한다. 제작비만 1천200만파운드 정도 들어갔다.



상징인 두개골을 갖다가 사치와 욕망, 데카당스의 궁극적 상징인 다이아몬드로 덮어버리는 것보다 이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이 작품을 설명했다. 이 작품의 가격 5천만파운드는 허스트를 파블로 피카소, 구스타프 클림트 등 20세기 거장들의 인기 작품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가격이다. /연합뉴스

고려 선박 물 스미방지에 벗질렸다

해양유물전시관 고려시대 '안좌선' 정밀조사 수밀재 확인

지난 2005년 신안군 해상에서 인양한 고려시대 선박인 '안좌선'의 수밀재(水密材)로 벗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은 3일 '해리(解離·세포 분리방식)를 통해 안좌선의 수밀재를 분석한 결과 재료가 벼 속(屬)의 벼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밀재란 '물이 새지 않게끔, 배에 난 틈 뺀 뒤에 난 틈을 메우는 물건'이다. 즉,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틈을 막는 물질인 것이다. 문헌상 수증발굴과정은 "벗질은 오래 전부터 생활소품을 비롯한 여러 용도로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한 초본 재료 중 하나"라면서 "이번에 안좌선 수밀재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벗질을 확인한 점은 한국 고선박 제작기술의 한 단면을 구명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중창·5중주... "교수님들 멋져요"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음악회 7일 예술대 연주홀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학과장 이형석·사진) 교수음악회가 7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좀처럼 한 자리에 서기 어려운 각 분야의 교수들이 이중창, 이

중주, 5중주 등 다양한 형태로 짝을 이뤄 음악을 들려준다. 김선자·문현옥 교수는 브라스의 '2대'의 피아노와 4개의 건반을 위한 하이든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려주며 조규



철·이경은씨는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의 삽입곡을 선사한다. 또 정영기·신수경·동수정·박지혜씨 등이 출연하며 피날레는 이형석·양새미·임요섭·오성석·조현영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곡 2번 A장조'가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해설이 있는 화요음악회' 5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향교향악단이 주최하는 제7회 해설이 있는 화요음악회가 5일 오전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진행은 임진숙(광주 KBS 총국 아나운서)씨. '여름 향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시향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창훈씨가 비발디의 '사계'중 '여름', 현악 앙상블이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를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또 테너 최재훈, 메조소프라노 김영실, 바리톤 조경욱씨 등이 찬조출연해 '꽃구름 속에',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을 들려준다. 화요음악회는 매월 첫번째 화요일 오전 11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다음 연주회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061-544-0600

엔터시네마 총창로 5가 ☞ 228-2700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무등극장 총창로 1가 ☞ 232-9106

제일시네마 총창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